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기역량지각을 매개변인으로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on School Adjustment

Perceived by School-Age Children

: Self-Perceived Competence as a Mediating Variable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강 사 황 윤 정**

부 교수 민 하 영***

Dept. of Child, Daegu Catholic Univ.

Lecturer : Hwang, Yun-Jung

Associate Professor : Min, Ha-Yeou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on school adjustment using self-perceived competence as a mediating variable for perceived school age children. The subjects were 760 children who are 4, 5, and 6 grades in 4 elementary schools at Daegu.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ingle and multiple regressions that used SPSS win 19.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parental Attachment perceived by school-age childre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on school adjustment. The parental attachment level of school-age children becomes higher as the perception of school adjustment increases. (2) The parental attachment perceived by school-age childre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lf-perceived competence. That is, the parental attachment level of school-age children becomes higher as the self-perceived competence increase. (3)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in the school adjustment by children was reducing explanation when controlled for the self-perceived competence. The Parental attachment that influenced the school adjustment is partially mediated by self-perceived competenc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both the quality improvement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for school adjustment of school-age children and training for strengthening self-perceived competence of school-age children are important.

▲주요어(Key Words) :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부모애착(parental attachment), 자기역량지각(self-perceived competence)

* 이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로 2011년 한국가정
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것을 확장한 것임.

** 주 저 자 : 황윤정 (E-mail : hwang986@hanmail.net)

*** 교신저자 : 민하영 (E-mail : hymin@cu.ac.kr)

I. 서론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시작되는 학령기는 공적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다.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덕목 등이 공식적 기관인 학교를 통해 교육됨으로써 본격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사회적 관계의 확장 및 본격적인 사회화 과정이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이후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생애 처음으로 학교생활을 경험하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방안 제시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학령기 아동의 가정환경 측면이다. 2차적 사회적 관계의 질이 1차적 사회적 관계의 질에 의해 영향받음(Bowlby, 1980)을 고려해 볼 때 가족관계의 질은 학교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족관계 중 부모와의 애착은 가족 외 사회적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지적(Yoon, 2002)되고 있다. 부모와의 애착이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초·중·고등학생 각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Lee & Chung, 2004; Choi, 2005; Shin & Im, 2005; Park, 2011)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애정과 관심을 많이 받을 때, 그리고 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할 때 학교생활만족이나 학교적응유연성 등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와의 관계 특히 애착관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와의 애착이 학교생활에서 요구하는 내적특성(동조, 협동, 정서조절)의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타인이 자신의 요구에 반응적일 것이라 기대'하는 긍정적 내적작동모델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동료나 선배 또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동조적 행동을 더 많이 하고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조절하며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한다. 이러한 행동은 궁극적으로 동료나 선배 또는 교사와 같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반응과 평가를 이끌어 내고 이것이 아동 자신에게 학교생활의 만족감으로 이어져 높은 학교적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와의 애착이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러한 연구결과 들은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정환경에서 부모와의 애착 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 볼 것은 부모와의 애착이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보다 부모와의 애착을 통해 발달하는 건강한 자아감이 학교적응의 궁극적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는 점이다. 부모와의 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심리적 표상인 내적작동모델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양식 뿐 아니라 자아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학교생활이 대인관계 외 학업성취, 규칙 준수 등 대인관계 외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총체적 활동임을 고려해 볼 때, 학교적응은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관계인 애착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 받기보다 애착에 의해 발달한 자아감 등에 보다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형성된 애착의 질이 아동 자신의 건강한 자아감을 발달시키고 이러한 자아감이 가정생활 밖 환경 적응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자아감은 자신감, 자아존중감, 자기수용, 자아개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지각된 자기역량감 즉 자기역량지각은 학교적응을 이끄는 중요 변인(Moon & Sim, 2001; Jang & Song, 2004)으로 고려될 수 있다. 개인이 학교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편안해하고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를 학교적응이라 정의(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할 때, 학교생활에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있다면 학교적응은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역량지각은 학교적응을 예언하는 주요 지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 등 자기 자신의 전체적 능력에 대해 내려지는 긍정적이고 능동적 지각이 자기역량지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역량지각은 아동의 성취동기를 유발하는 내적 힘(Harter, 1983)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기역량을 높게 지각하는 아동은 자기역량감을 바탕으로 발달한 높은 성취동기를 기반으로 학교생활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보여진다. 자신의 능력과 기량을 발휘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려 할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이 성취동기(Steer, Porter & Bigley, 1996)임을 고려할 때 자기역량을 높게 지각하는 아동은 성취동기를 기반으로 또래 집단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교실에서의 만족스러운 수행, 책임있는 행동 등을 통해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나타내려 할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자기역량감은 학교적응에 보다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역량감은 실질적으로 생애 초기부터 형성되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발달하기 때문에 학교적응에 미치는 자기역량감의 영향은 원천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역량감은 부모와의 관계 특히 부모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Jeong & Oh, 1993; Park & Cheon, 2008)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에 비해 인지역량, 사회역량을 보다 높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1996). 어머니

의 애착이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애착으로 인해 자신이 항상 조건없이 수용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조건없는 수용감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전반적 가치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생애 처음으로 학교생활이 시작되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은 부모애착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영향은 부모애착에 의해 발달된 자기역량지각에 의해 매개된 영향이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을 이러한 인과 관계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없다. 다만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은 부모와의 관계(Lee & Chung, 2004; Choi, 2005; Shin & Im, 2005; Park, 2011)에서 또는 자아감(Moon & Sim, 2001; Jang & Song, 2004) 측면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접근할 뿐 연속적 인과관계를 통해 접근한 것(Baik, 2000; Lee & Park, 2005; Nam & Park, 2009)은 매우 드물다. 연속적 인과관계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 자아감, 그리고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본 연구는 있으나, 중국 조선족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애착, 자아개념 그리고 학교적응간 관계를 살펴보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안에서 부모와의 관계(Nam & Park, 2009)를 기초로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학교적응간 관계를 살펴보거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자아존중감과 대학적응간 관계(Baik, 2000)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를 국내 학령기 아동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을 부모와의 애착과 자기역량지각 측면에서 접근하되, 부모와의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자기역량지각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과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의 영향이 자기역량지각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Baron and Kenny(1986)는 다음 과정이 충족될 때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첫째, 독립변인(부모애착)은 종속변인(학교적응)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부모애착)은 매개변인(자기역량지각)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독립변인(부모애착)과 매개변인(자기역량지각)이 종속변인(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동시에 투입됨으로써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매개변인은 독립변인의 효과를 각각 통제했을 때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때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셋째 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각각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관련이 나타나는 가운데, 종속변인

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첫 번째 단계보다 감소했다면, 이러한 경우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과정에 기초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모애착의 영향은 자기역량지각에 의해 매개되는가?

[1-1]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독립)은 학교적응(종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독립)은 자기역량지각(매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1-3]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종속)에 미치는 부모애착(독립)의 영향은 자기역량지각(매개) 통제 시 변화하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의 해결은 아동이 생애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생활에서 성공적 적응을 하는데 필요한 우선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는 학교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나 상담사 또는 성공적 학교생활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구지역 4개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76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학령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학년은 6학년이 350명(46.0%)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남아 403명(53.0%), 여아 357명(47.0%)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부모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은 41~45세가 381명(50.0%)으로 많았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6~40세가 351명(46.1%)으로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이하가 425명(56.0%)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도 고등학교 이하가 453명(59.6%)로 가장 많았다. 아동 가정의 경제수준을 보면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정이 319명(42.0%)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학교적응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은 Lee and Kim(2008)의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33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나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chool-Age Children

(n=760)

Variable	Classification	Frequency(%)	Variable	Classification	Frequency(%)
Grade	4th	154(20.3)	Education (Father)	High school	425(56.0)
	5th	256(33.7)		2 years College	75(10.0)
	6th	350(46.0)		University	225(29.5)
Gender	Male	403(53.0)		Graduated School	34(4.5)
	Female	357(47.0)	Education (Mother)	High school	453(59.6)
Age (Father)	< 35	24(3.2)		2 years College	69(9.1)
	36~40	190(25.0)		University	197(25.9)
	41~45	381(50.0)		Graduated School	41(5.4)
	46~50	129(17.0)		Income (Million won)	< 200
	> 51	36(4.8)	200~300		173(22.7)
Age (Mother)	< 35	90(11.9)	300~400		152(20.0)
	36~40	351(46.1)	> 400		116(15.3)
	41~45	245(32.2)			
	46~50	59(7.8)			
	> 51	15(2.0)			

학교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잘 익힐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등의 학교에서 학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학교공부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묻는 질문,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로부터 많은 것은 배운다.’, 등의 학교에 있는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도움을 잘 주고받는지를 묻는 질문,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나는 학교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등의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친밀한 개인적 교류를 묻는 질문, ‘학교규칙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내용이므로 잘 지켜야 한다.’, ‘나는 학교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등의 학교규칙을 잘 지키며 학교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타당도는 Lee and Kim(2008)의 연구에서 구성 타당도를 통해 확인되었고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4명에 의해 내용(안면) 타당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응답 가능 범위는 33점에서 1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2) 부모애착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 and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켜 측정하였으며 부애착 측정 20문항과 모애착 측정 20문항을

합쳐서 부모애착을 측정하였다.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우리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부모님을 믿는다.’ 등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 ‘부모님은 내가 기분 나쁠 때 잘 알아차린다.’, ‘나는 부모님께 나의 어려움과 걱정거리에 대해 이야기 한다.’ 등의 의사소통을 묻는 질문, ‘부모님은 내게 별 관심이 없다.’, ‘부모님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등의 소외감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타당도는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4명에 의해 내용(안면) 타당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응답 가능 범위는 40점에서 2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3) 자기역량지각

학령기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은 Harter(1985)의 아동용 자기역량지각검사(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 SPPC)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나는 또래의 다른 학생들만큼 영리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 등의 학업수행과 관련된 질문,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귄 수 있다.’,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고 생각한다.’ 등의 친구들과로부터 받고 있는 인정과 관련된 질문, ‘나는 어떤 운동이든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새로운 놀이들을 잘 못한다.’ 등의 놀이나 운동과 관련된 질문, ‘나는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내 얼굴이나 머리모양을 좋아하는

다.’ 등의 자신이 행하는 행동 방식과 관련된 질문,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나는 현재의 나 자신에 대해 만족스럽다.’ 등의 자기 자신을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가치있다고 느끼는지와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타당도는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4명에 의해 내용(안면) 타당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각 문항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문항에서 자신과 비슷한 문장을 결정한 후 나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약간 그렇다’란에, 나와 정말 비슷하다면 ‘정말 똑같다’란에 표시하는 형태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가능 총점의 범위는 26점에서 10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유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대구지역 4개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4, 5, 6학년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요령을 설명한 후 학교적응, 부모애착, 자기역량지각을 묻는 아동용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4주 후에 재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질문지는 총 900부가 배부되었으나, 양부모 가정이나 아동이나 전반적으로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

은 질문지 140부(16%)를 제외한 760(84%)부가 최종분석 대상이 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의 단순 및 중회귀분석과 함께 간접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전 관련 변인에 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았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적응의 평균(표준편차)은 122.04(19.38)로 나타났으며, 부모애착의 평균(표준편차)은 158.07(27.32), 그리고 자기역량지각의 평균(표준편차)은 74.86(12.30)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과정 모델을 기초로 <연구문제 1-1, 1-2>, 그리고 1-3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1단계<연구문제 1-1>에서는 독립변인(부모애착)이 종속변인(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연구문제 1-2>에서는 독립변인(부모애착)이 매개변인(자기역량지각)에 미치는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arental Attachment by Children,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School Adjustment (n=760)

Variables(Questions)	Min-Max	Mean(Std. Deviation)
School Adjustment(33 questions)	41~165	122.04(19.38)
Parental Attachment(40 questions)	58~200	158.07(27.32)
Self-Perceived Competence(26 questions)	28~104	74.86(12.30)

Table 3. The Mediated Effect of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for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in the School Adjustment by Children

step	Variable	B	Std. Error	β	F (df)	R ²	Constant (Std. Error)
1 step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Parental Attachment → School Adjustment	.39	.02	.55*	328.62 (1, 758)	.30 60.37 (3.45)
2 step	Independent Variable → Mediator Variable	Parental Attachment → Self-Perceived Competence	.22	.01	.48*	228.02 (1, 758)	.23 40.64 (2.30)
3 step	Independent, Mediator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Parental Attachment, Self-Perceived Competence → School Adjustment	.23 .73	.02 .05	.33* .46*	329.63 (2, 757)	.47 30.87 (3.59)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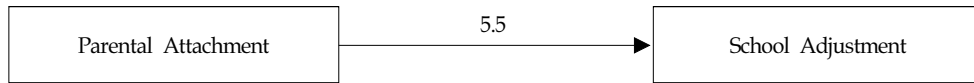


Figure 1.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in the School Adjustment by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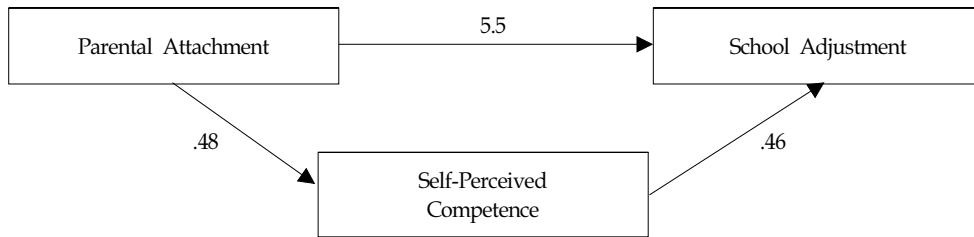


Figure 2. The Mediated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Perceived by School-Age Children on the School Adjustment based on Self-Perceived Competence

Table 4. Effect Decomposition of Path Model for Parental Attachment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in the School Adjustment

Variable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Parental Attachment → Self-Perceived Competence	.48*	.48*	-
Parental Attachment → School Adjustment	.55*	.33*	.22*
Self-Perceived Competence → School Adjustment	.46*	.46*	-

*p < .05

영향을 단순회귀분석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연구문제 1-3>에서는 독립변인(부모애착)과 매개변인(자기역량지각)을 동시에 투입하여 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종속변인(학교적응)에 미치는 독립과 매개변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3>의 경우 중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회귀모델의 기본 가정인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선성 통계량인 공차한계값과 VIF값을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공차한계 값이 .77, VIF값이 1.30 나타남으로 인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배제되었으며 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은 충족되었다.

<Table 3>의 1단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은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beta=.55, p<.05$)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ron and Kenny (1986)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 점수가 높을수록, 즉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되었을수록 학교적응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단계에서도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자기역량지각에 정적인 영향($\beta=.48, p<.05$)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역시 Baron and Kenny(1986)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 점수가 높을수록, 즉 부모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될수록 자기역량지각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학교적응에 대한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을 통제했을 때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beta=.55 \rightarrow \beta=.33$)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의 영향이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에 의해 부분 매개되어짐을 나타내며, Baron and Kenny (1986)의 세 번째 조건 중 부분 매개효과를 만족하는 것이다 (<Figure 1> 참조).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Table 3>의 1단계 결과를 토대로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으며,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Table 3>의 2, 3단계를 토대로 하여 경로모형을 나타내면 <Figure 2>와 같다. 한편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 자기역량지각 그리고 학교적응 간 매개관계의

경로모형을 분할표로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구지역 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 아동 760명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모애착의 영향이 자기역량지각을 매개로 이루어지는가를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과정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은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아동들의 학업과 교우관계 등 학교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Yoon, 2002; Jung, 2003; Kim, Jung, & Lee, 2003; Kim, 2007)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애착은 아동의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부모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아동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대인관계에 대한 긍정적 내적 표상을 기반으로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을 더 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모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향상을 위해서라도 아동의 생애 초기부터 안정된 애착 형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현장에서는 가정생활에서 충분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들을 중심으로 학교적응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이 높은 학령기 아동일수록 자기역량에 대한 지각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이 사회적 관계 대상인 부모와의 애착형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 경우 자신을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반면 애착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신을 가치없는 존재라고 지각한다는 연구결과(Lee, M., 1988; Lee, J., 1994; Han, 1995)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아동이 격려적이고 지원적이며 협조적인 부모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아동 스스로가 환경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의 능력감을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Bowlby, 1982)를 지지하는 것이다. 자기역량이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비로소 성취하는 것이라 볼 때, 생애 처음 접하게 되는 환경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애정과 지지는 자신의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토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자기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부모의 애착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적응에 대한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의

영향은 자기역량지각을 통제하였을 경우 설명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애착의 영향이 자기역량지각에 의해 부분 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교적응에 대한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의 영향이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에 의해 부분 매개된다는 사실은 학교적응에서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보다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보다 현재 아동이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가 학교적응에 보다 큰 의미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자기역량지각에 영향을 주게 되고 부분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에서 부모애착은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적응을 위해 가정이 학교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부모애착만큼 중요한 것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인식하는 평가이다. 학령기는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확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적 비교를 통해 자기역량에 대한 지각의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하는 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교환경에서는 아동 스스로 자신의 능력,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보다 다양한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될 때 아동은 학교생활에 보다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아동과 부모간 상호관계의 질적 향상도 중요하지만 학령기 아동 자신의 자기역량지각을 강화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나 행정적 지원 마련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대구지역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매개 모형을 토대로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가정환경변인인 부모애착과 개인변인인 자기역량지각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한편 추후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자기역량지각 강화 훈련이나 향상 프로그램 마련 시 남아와 여아를 구분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남녀 구분없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인지 또는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독립적 프로그램으로 실행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규명한다면 학교적응의 효율적 관리와 최적의 성과를 도모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이다.

REFERENCE

- Baik, J. S.(2000). Attachment to parents : Relationship to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8(1), 127-137.
- Choi, Y. J.(2005). The influence of internalization problem and attachment to parents on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2), 15-25.
- Han, J. H.(199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2), 129-141.
- Jang, S. C. & Song, M. H.(2004). Relationship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1(3), 115-133.
- Jeong, H. H. & Oh, M. K.(1993).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attachment on parent and self-concep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1(1), 85-95.
- Jung, S. H.(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ity of attachment,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G. S., Jung, Y. O., & Lee, N. H.(2003).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ttachment, self-efficacy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6(2), 259-279.
- Kim, S. S.(2007).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for predict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aggression among children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2, 65-95.
- Lee, J. L.(1994). *A study on children's home environment and peer group environment and their self-perceived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J. L.(1996).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perceived competence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4(1), 1229-1331.
- Lee, J. S. & Chung, H. J.(2004). The relations among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attachment with their parent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3), 47-61.
- Lee, K. M. & Kim, M. S.(2008). A validation study on the school adjustment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 27-40.
- Lee, M. J.(1988). The relation between paternal self-esteem, child-rearing behaviors and child's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9(1), 47-61.
- Lee, S. R. & Park, H. W.(2005). The influence of attachment with mother on self-concept,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in Korean-Chinese school age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9), 109-127.
- Moon, E. J. & Sim, H. O.(2001).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friendship quality, self-perception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4), 99-113.
- Nam, Y. J. & Park, T. Y.(2009).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4), 47-71.
- Park, E. Y.(2011). A study on factors of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6), 1-27.
- Park, W. M. & Cheon, S. M.(2008). A study on parent attachment,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 of the 6th grade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 41-59.
- Shin, H. S. & Im, M. R.(2005). Testing the mediation effect of horizontal social relationships i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parent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1), 103-126.
- Yoon, J. H.(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children's attachment, and soci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tholomew, K. & Horowitz, L. M.(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Vol. 1. Sadness and depression*. N.Y.: Basic Books.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Y.: Basic Books.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4th ed.):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275-385. N.Y.:Wiley.
- Harter, S.(1985).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Steer, R. M., Porter, L. W., & Bigley, G. A. (1996). *Motivation and leadership at work*. N.Y.: McGraw-Hill.

- 접수일 : 2012년 01월 15일
- 심사일 : 2012년 02월 06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3월 07일